

생(生)과 사(死)

자유기고가 김춘경

자살(自殺)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모진 일이다.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기주위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영어와 프랑스어의 자살(suicide)이라고 하는 말은, 어원적으로는 라틴어의 sui(자기 자신)와 caedo(죽인다)의 두 낱말의 합성어로 되어 있다. 이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자살이란 그 원인이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또는 그 어느 것이든 간에 당사자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풀이는 일견해서 명백하기는 하나, 실제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 예컨대 형식상으로는 일반적인 자살의 한 형태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처벌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다를 수 있다. 또 환경의 영향이나 주위사정 또는 타인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과연 이것을 자살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 어떨지 의문이 된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전투를 하다가 적에 의한 죽음은 일반적으로 자살이라고는 할 수 없고 전사나 기타 불가항력적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

사대나 특공대 따위와 같이 스스로 죽음의 길로 자원하는 경우에 그것은 자살이라고 할 수 없으나, 그러나 그때의 정황에 따라야 하므로 그 한계는 매우 애매하다. 자살의 시비에 관한 윤리관이나 종교관에 대해서는 예부터 동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분분하여 왔다.

자살 긍정론자는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생명에 관하여 그 본인은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 윤리적 입장에서 이를 시인하였다. 그리고 종교적 관습으로서 인도에 서티(Suttee)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남편과 사별한 아내가 남편과 같이 극락에 가서 살기를 바라는 염원에서 뒤를 따라 자살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서티는 아내의 우리말로 순사(殉死)로 번역되는데, 옛날 인도에서 남편의 화장(火葬)때 아내가 산 채로 몸을 던져 타죽던 풍습이다. 서티는 산스크리트(Sanskrit)어(語) sati에서 왔는데 진실한 부인(true wife)을 의미한다고 한다. 속설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순장(旬葬)이라 하여 임금이나 남편의 장사에

신하나 아내를 산채로 함께 장사하던 일이 있었다고 전한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는 예전에 주군(主君)의 죽음에 대하여 신하가 순사(殉死)하는 관습이 있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확실치 않다. 근세 이후의 문예작품이나 연극 속에서는 자살에 동정하고 정사를 찬미하는 사상이 꽤 강하게 보인다. 이를테면 《사(死)의 찬미》 같은 작품이 그렇다.

그러나 자살부정론자는 자살은 신과 국왕에 대한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천부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하여 신랄하게 비난하였다. 특히 기독교에서는 자살은 신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하여 이를 죄악시하였다.

카톨릭에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죄악시하는 사상이 강하다. 불교에서는 열반(涅槃) 사상의 입장에서 자살을 금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종교적인 자살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화정(火定)이라 하여 불도(佛道)를 닦은 이가 열반할 때 스스로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기 몸을 불살라 종교나 정의(正義)를 위하여 희생하는 분신(焚身)자살이 바로 그것이다.

자살의 상태면에서는, 자살은 지역적 그리고 시대적으로 보아 다양한 발생 상황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자료는 아니지만 나라별로 자살율이 높은 나라는 서구의 덴마크·독일·스웨덴 등이며 반대로 낮은 곳은 이탈리아·네덜란드·노르웨이 등이다. 그리고 영국·프랑스·미국·일본 등이 그 중간적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한다. 이것만으로는 나라별 자살경향을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서 유럽의 경우를 보면 전반적으로 자살 경향은 북부에 있는 나라들이 높고 남부의 나라들로 내려갈수록 자살율은 감소된다고 한다.

그리고 남녀별과 연령별 자살경향을 보면, 남녀별에서는 어느 나라건 여자의 자살율은 남자의 자살율보다 훨씬 낮다. 여자의 남자에 대한 자살 비율은, 영국의 62.6%와 일본의 72.5%를 제외하면 대개의 나라에서는 여자는 남자자살율의 반이하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숨은 이유를 들 수 있으나, 역경에 순응하고 곤란을 강인하게 견뎌내는 능력이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많고 또 훨씬 높다는 것이다.

여자는 남자에 비하여 사회적 활동의 범위가 좁고 아직까지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살의 동기가 되는 사회적 곤란에 봉착하는 일이 적다는 것 등이 그 주요한 이유로 지금까지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여자는 남자보다 생(生)에 대한 애착이 깊고 강하다는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자살율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띠고 있다. 이 이유는 아직까지도 명쾌하게 밝혀진 바 없다.

그러면 자살의 원인은 무엇인가?

프랑스의 사회학자 뒤르켐(E. Durkheim : 1858~1917)에 의하면, 이 세상의 자살에는 이기적 자살·애타적(愛他的) 자살·무규제적(無規制的) 자살의 3가지의 큰 형태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기적 자살은 개인이 사회와 결합하는 양식과 과정에 있어서 과도한 개인화(個人化)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한다. 즉 개인과 사회의 결합력이

약할 때에 일어나는 자살이지만, 애타적 자살은 반대로 그 양식에 있어서 과도한 집단화가 이루어질 경우에 발생한다. 즉 사회적 의무가 너무나도 강해서 개인이 이것을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서 자신을 도저히 이겨내지 못할 때 일어나는 자살이다. 또 무규제적 자살은 사회집체의 급격한 변화와 사회환경의 큰 차이 혹은 도덕적 통제의 결여에 의한 자살이라고 한다.

실로 자살의 원인은 복잡하고 파악하기 어려우나, 대개는 신경쇠약·실연·병고·생활고·가정불화·생의 좌절·장래에 대한 불안과 절망·사업실패·염세(厭世)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히 염세·병고·신경쇠약·실연·가정불화가 두드러지게 많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각하다. 이것을 남녀별로 보면, 남자에게는 신경쇠약과 병고와 같은 단독적 이유가 많으며, 반면에 여자에게는 가정불화와 실연과 같이 상대적 이유가 많다.

그리고 연령적으로는, 청소년에게는 실연과 염세가 많으나 노인에게는 병고가 특징적으로 가장 많다고 분석되고 있다. 그런데 가정불화 등은 20대~30대가 많다고 통계자료에서 지적하고 있다. 한편 자살의 원인은 대개는 자살자의 유서와 주위나 측근의 증언, 혹은 자살 미수자의 진술 등에서 간신히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과 조건이 복잡하게 뒤얽혀 있어서 그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규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외국의 저명인사의 자살을 살펴본다.

외국에서는 1890년에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쏜 네덜란드의 후기 인상파 화가 고히(Vincent van Gogh : 1853~1890)와 1961년에 엽총 자살이라고 전하여지는 미국의 노벨문학수상 작가 헤밍웨이(E. Hemingway : 1899~1961), 그리고 1972년 이웃 나라 일본의 역시 노벨문학수상 작가 카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의 자살이 유명하다.

정치가로는 영국의 인도지배를 굳힌 클라이브(R. Clive : 1725~1774)가 있는데, 그는 인도에서 귀국한 뒤에 국내의 여론과 심한 비난을 견뎌내지 못하여 그만 자살하였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치의 총통이며 독일의 연방수상(1933~1945) 히틀러(A. Hitler:1889~1945)는 1945년 당시 소련군이 베를린으로 돌입했을 때 전사 또는 자살하였다고 전하여지고 있다. 그리고 그의 심복 부하였던 선전상 괴벨스(J. Göbbels)는 그때 자살하고, 같은 공군 총사령관 괴링(H. Göring)도 뉘른베르크(Nürnberg)의 국제 군사 법정에서 교수형이 선고되었으나, 처형당하기 바로 전 1946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밖에 공산주의 세력과 대결하다가 1948년에 자결한 체코슬로바키아의 외상 마자리크(J. Mazanik)도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1962년 미국의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Marilyn Monroe)의 가스중독사가 자살인지 우연한 사고인지 모호하여 세간에 화제가 되었었다. 또 미국의 여배우 나탈리 우드(N. Wood)도 연못에 투신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의 여류소설가이며 비평가인 울프(Virginia Woolf : 1882~1941)는 20세기 소설작법 변혁자의 위대한 작가중의 한 사람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내적독백이나 의식의 흐름이라고 일컫는 특수한 기교를 그녀의 작품을 통해 실험했다. 당시 저명한 작가가 결집했던 브롬즈베리 그룹의 일원으로 빅토리아 왕조의 비평가 L. 스티븐의 딸로서 중류계급의 풍요한 지적 환경 속에서 자랐다.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은 좀 늦은 그녀의 나이 30세가 넘어서이고 최초의 2 작품, 《출항》과 《밤과 낮》에서는 실험적인 면은 전혀 볼 수 없었으나 《제이콥의 방》부터 탁월한 수법의 실험이 눈에 띈다. 의식의 흐름을 다루어서 가장 성공한 작품은 역시 《델러웨이 부인》, 《등대로》와 《물결》인데, 그러나 만년의 작품 《세월》과 《막간》에 이르러 단가 모르게 실험성이 다시 퇴색되어 회박해진다.

《세월》은 그녀의 전 작품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애독되고 있는 작품이다. 그녀의 어느 작품이나 수법의 차이는 있지만 작가 자신의 인생경험을 철저한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름이 없다. 비평작품에 《일반독자》가 있는데, 지금도 소설독법(讀法)에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애독하고 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1941년에 탬즈강에 투신하여 아까운 목숨을 끊었다.

미국의 여류시인 플래스(Sylvia Plath : 1932 ~ 1963)는 영국의 시인 테드 휴즈(Ted Hughes)와 결혼했는데, 시집으로는 《거상(巨像)》과 《에이리얼》

등이 있다. 소녀시대에 발군의 재질로 촉망받았으나 심적 갈등을 이기지 못해 두 딸을 뒤로하고 끝내 가스 자살을 하였다.

미국의 시인 티즈데일(Sara Teasdale : 1884 ~ 1933)은 고독을 좋아한 나머지 그녀는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스스로 숨졌다. 죽기전 여섯해에 걸쳐 감동적이고 쉬운 문체로 많은 시를 써서 호평을 받았다. 시집으로 《불꽃과 그림자》가 있다.

이뿐이라, 여성해방을 외친 여류시인 섹스턴(Anne Sexton : 1928 ~ 1974)은 정신병원에 여러차례 드나들다가 끝내 자살하고 말았다. 유고시집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며》라는 의미있는 제목의 작품을 남겨 놓았다.

베트남의 고 딘 디엠(Ngo Din Diem) 정권에 항거한 그 많은 불교 승려와 애국의 젊은이들의 분신 자살은 신문 보도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혹은 1968년 당시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입에 항거하여 수도 프라하에서 뒤를 이어 일어난 학생과 노동자의 분신 자살 등도 국제적으로 커다란 화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사람을 교사(敎唆) 또는 방조(幫助)하여 자살하게 하는 죄가 자살관련죄(自殺關與罪)이다. 자살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어 자살의 교사나 방조를 처벌하는 것이다. 객체인 사람은 타인인데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있는 자임을 요한다. 여기의 교사란 자살할 의사 없는 자에게 자살을 결의케 하는 것이고, 방조는 이미

자살을 결의하고 있는 자의 자살행위를 용이케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 제254조에 의하여 미수범도 처벌한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함께 자살하는 이른바 동반자살이 정사(情死 : double suicide for love)인데, 다시 말해서 합의에 의한 공동자살(suicide pact)이다. 자살은 형법상 범죄가 될 수 없으나 정사에 실패하여 1인이 살아 남거나 2인이 다 생존했다면 형법상 문제가 된다. 즉 1인이 생존한 경우 그에게 자살의 교사나 방조가 있었다면 자살 관여죄가 성립되고, 2인이 생존하였을 때는 그 중 1인에게 교사나 방조의 죄가 성립될 수 있다.

알래스카 설원에서 야성으로 돌아가는 사육견의 이야기를 적은 《황야의 부르짖음》, 바다표범잡이배의 초인적인 선장의 역할을 그린 《해랑(海狼)》, 자본주의 세계의 미래를 예견한 《철종(鐵踵)》, 반자서

전적인 《마틴 이튼》 등을 쓴 미국의 소설가 런던 (Jack London : 1876 ~ 1916)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다. 그는 지금도 미국인들의 자존심이다. 선원·채금사(採金師)·신문기자와 같은 잡다한 직업을 전전하며 그가 걸어온 불우한 반생을 그대로 표현한 야생적인 자연주의 작가였다. 한 때 다윈과 마르크스에 기울어졌으나, 니체의 초인사상의 영향도 받아 그의 작품속에는 이러한 양면성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따라서 자연의 엄숙한 생명력을 노래하는 소설과 함께, 사회의 부패와 타락상을 파헤친 작품도 많다. 청소년 시절에 무절제하고 무계도한 방랑생활을 보냈다. 알래스카의 이른바 금광열이라고 하는 골드러시(gold rush)에도 끼어 들었고 노일전쟁 때에는 겁없이 만주에도 쫓아갔다. 그 사이에 독학으로 얻은 잡다한 지식을 기반으로 작가생활에 들어가 일단 성공하였으나, 삶의 모순에서 오는 갈등으로 자살하고 말았다.

